

## 『성경전서』(1911년)의 번역 검토 제2부

-『마태복음서』 번역의 과오와 계승 방안을 중심으로-

김창락\*

###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한국어로 최초로 번역, 출판된 신, 구약 성경 전서이자 한국 교회의 공인을 받은 최초의 성경인 『성경전서』(1911년, 이하 『구역』)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여, 『구역』의 번역상의 공과를 철저히 밝혀서 앞으로 새로 나올 번역에서 그 장점은 계승하고 그 과오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지난 1부에서는 『구역』의 장점을 서술하고 그 계승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구역』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구역』도 몇몇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구역』에 대한 충분한 비평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후대의 여러 번역에서 『구역』의 과오가 적지 않게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실정이다. 2부에서는 『구역』의 과오와 개선 방안을 기술하고자 한다.

### 2. 반복되는 과오들

『구역』에는 그리스어의 어법을 철저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

\* 한신대학교 은퇴 교수, 신약학

범한 번역상의 과오가 반복되며, 이러한 과오는 후대 번역본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2.1. 현재 분사(present participle)와 단순 과거 분사(aorist participle)의 차이를 철저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 오역이 많다

26장 30절은 “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라고 옳게 번역되어 있다. 이것을 “또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나가니라”로 번역하는 것은 오역이다. 실제로는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갔을 수도 있고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나갔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스어는 이 두 가지 상황을 표현하는 방법이 엄격하게 다르다. ‘찬미하고’를 뜻하는 경우에는 단순 과거 분사를 사용하고 ‘찬미하면서’를 뜻하는 경우에는 현재 분사를 사용한다.

3장 6절은 “각각 제 죄를 즈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의게 세례를 받으니”로 번역되어 있다.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자복하며’ 또는 ‘자복하면서’로 번역해야 한다. 분사 구문을 문장의 순서대로 번역하려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각각 제 죄를 자복하였다”로 번역해도 된다. 『게일역』과 『개역』은 『구역』의 오역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새번역』, 『공동개정』, 『200』은 “죄를 고백하며 … 세례를 받았다”라고 바르게 번역했다.

4장 8-9절은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 던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골으딴”로 번역되어 있다. 8절은 ‘데리고 가다’와 ‘보여주다’ 두 개의 주동사로 연결된 문장인데, 둘 다 역사적 현재다. 9절의 동사는 단순 과거다. 역사적 현재를 역사적 시간에 어울리게 바꾼다면 단순 과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구절의 올바른 번역은 “그를 매우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그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기를”이거나 “... 데리고 가서... 보여주며 말하기를”이다. ‘보여’라고 번역하는 것은 잘못이다. ‘외쳐 부르다’에서 ‘외쳐’는 부르는 행위에 수반되는 행위이

다. ‘보여 골으되’에서 ‘보여’는 ‘말하다’에 부수되는 동작인 셈이다. 원문의 뜻은 그렇지 않다. 『개역』만 『구역』의 오역을 답습했다. 『게일역』은 ‘…올나가 天下萬國의 榮光을 보이며 골으되’로 번역했으며, 『새번역 신약』, 『공동개정』, 『200』, 『성경』도 ‘…보이며’로 번역했다. 『표준개정』은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말하였다’로 번역했다. 모든 영어 성경은 『표준개정』처럼 ‘…showed him and said’의 구문으로 번역했다.

8장 2절은 “흔 문동이 나아와 절하고 골으되”로 번역되어 있다. ‘절하고’는 미완료로 이 문장의 본 동사이고 ‘나아와’는 단순 과거 분사이고, ‘골으되’는 현재 분사다. 만일 ‘절하다’라는 동사가 단순 과거라면 ‘절하고’로 번역해야 한다. 그러나 미완료이기 때문에 ‘절하고’로 번역하는 것은 오역이다. 더욱이 다음에 이어지는 분사가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미완료 동사의 계속성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 『게일역』과 『개역』은 『구역』의 오역을 그대로 답습했다. 그러나 『새번역 신약』, 『공동개정』, 『200』, 『성경』은 ‘…절하며…’로, 『표준개정』은 ‘…절하면서…’로 번역했다.

8장 25절 “그 데즈들이 나아와 깨우며 골으되”이다. ‘깨우다’는 단순 과거다. ‘나아와’는 단순 과거 분사이고 ‘골으되’는 현재 분사이다. 단순 과거 동사이기 때문에 ‘깨웠다’, ‘깨우고’, ‘깨우고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게일역』, 『개역』, 『새번역 신약』, 『공동개정』, 『200』, 『성경』은 모두 『구역』의 이 오역을 답습했다. 『표준개정』은 ‘…깨우고서 말하였다’로 번역했다. 영어 번역본 가운데 “waking up” 형식을 사용하여 진행적 의미를 나타낸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모두 “woke up”이라는 과거형 동사를 사용하여 깨우는 행위를 종결시켰다.

9장 18절은 “흔 관원이 와서 절하고 골으되”이다. ‘절하고’는 미완료다. 그러므로 ‘절하고’라는 종결적 의미로 번역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게일역』은 ‘…敬拜하야 골으되’로, 『개역』은 ‘…절하고’로 번역하면서 『구역』의 오역을 답습했다. 『새번역 신약』, 『공동개정』, 『200』, 『성

경』이 다행히 ‘…절하며’라고 진행의 의미를 살려 번역했다. 그러나 8장 25절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이 철저한 번역상의 원칙에서 그렇게 했다가보다는 단순히 ‘…하며’라는 문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표준개정』은 ‘…무릎을 꿇고’로 번역했다. 무릎을 꿇은 자세는 지속적 상태를 나타낸다.

9장 22절은 “예수 | 도라보시며 곶으샤디”이다. ‘돌아보시며’는 원문에는 ‘돌아서다’라는 동사와 ‘보다’라는 동사의 단순 과거 분사가 등위 접속사 “καὶ/and”로 연결된 것이다. 단순 과거 분사를 진행의 의미의 ‘돌라보시며’로 번역한 것은 오역이다. 놀라운 것은 『로스역』이 ‘도라보와 곶으샤디’로 올바르게 번역했다는 사실이다. 『게일역』은 『구역』의 오역을 답습했다. 『개역』 ‘…돌이켜 그를 보시며…’로 번역하여 첫 번째 분사는 옳게 번역했으나 두 번째 분사는 여전히 진행의 의미로 잘못 번역했다. 『새번역 신약』은 ‘…돌아보시고’, 『공동개정』과 『표준개정』은 ‘…돌아서서…보시고’, 『200』은 ‘…돌아서서 보시고’로 바르게 번역했다. 『성경』은 『개역』과 같이 ‘…돌아서시어…보시며’로 번역하여 절반만 맞았다.

14장 26절은 “무서워하야 소리 지르거늘”이다. ‘무서워하다’는 동사는 단순 과거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여’로 번역한 것은 옳다. 『게일역』과 『개역』도 이 선례를 잘 따랐다. 다만 『새번역 신약』만이 ‘…무서워 떨며’로 잘못 번역했다. 『공동개정』과 『표준개정』과 『성경』은 ‘…겁에 질려’로, 『200』은 ‘…당황하여’로 각각 옳게 번역했다.

14장 31절은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곶으디”이다. ‘내밀어’는 단순 과거 분사고 ‘붙잡으시며’는 단순 과거 동사이다. 그러므로 ‘붙잡으시며’라는 진행적 의미를 담아 번역한 것은 잘못이다. ‘붙잡으시고’로 번역해야 한다. 『게일역』과 『개역』은 『구역』의 오역을 답습했다. 『새번역 신약』과 『공동개정』은 ‘붙잡으시며’로, 『200』은 ‘붙잡으며’로 잘못 번역했다. 『표준개정』과 『성경』만이 각각 ‘붙잡고’, ‘붙잡으

시고'로 바르게 번역했다.

16장 23절은 “예수ㅣ 몸을 도리키시며 베드로드려 닐으샤되”이다. ‘도리키시며’는 단순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돌이키시고’로 번역해야 옳다. 『개일역』은 ‘…몸을 도리키샤’로 바로 잡아 번역했으나 『개역』은 『구역』의 과오를 답습했다. 『공동개정』은 ‘…돌아보시고’로, 『200』과 『표준개정』과 『성경』은 ‘…돌아서서’로 각각 바르게 번역했다. 『새번역 신약』의 ‘…베드로를 향하여’는 완전히 틀렸다 하기도 곤란하고 완전히 맞았다 하기도 곤란한 번역이다.

17장 7절은 “예수ㅣ 나아와 너희를 만지시며 굴으되”이다. ‘만지시며’는 단순 과거 분사이며 ‘만지다’라는 뜻이 아니라 ‘접촉하다’(touch)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만지시며’라는 연속적 동작의 의미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이다. 『개일역』과 『개역』은 『구역』의 오역을 답습했다. 『새번역 신약』과 『공동개정』은 ‘…손으로 어루만지시며’로, 『200』은 ‘…그들을 만지며’로, 『성경』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로 각각 잘못 번역했다. 유일하게 『표준개정』만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로 옳게 번역했다.

18장 26절은 “그 종이 엎드려 절하고 굴으되”이다. ‘절하고’는 미완료 동사고 ‘굴으되’는 현재 분사이다. 그러므로 ‘절하고’라는 동작 종결적 의미로 번역하지 않고 동작 지속적 의미인 ‘절하며’로 번역해야 한다. 『개일역』은 『구역』의 오역을 그대로 답습했다. 『개역』은 ‘…엎드리어 절하며’로 바로 잡아 옳게 번역했다. 『새번역 신약』과 『공동개정』과 『200』과 『성경』은 모두 『개역』처럼 ‘…엎드리어/엎드려 절하며’로 옳게 번역했다. 『표준개정』은 ‘엎드리다’와 ‘절하다’를 하나로 합쳐서 ‘…무릎을 꿇고’로 번역했다. ‘무릎을 꿇고’는 지속적인 자세를 나타낸다.

20장 20절은 “예수의 와서 절하며 무어슬 구하니”이다. ‘절하며’와 ‘구하다’는 둘 다 현재 분사다. 그러므로 ‘절하며’라고 지속적 동작의 의미로 번역한 것은 옳다. 『개일역』, 『개역』, 『200』, 『표준개정』은 『구역』처럼 번역했다. 『새번역 신약』은 ‘…무릎을 꿇고’로 번역했다. 오직

『성경』만이 ‘…엎드려 절하고’로 잘못 번역했다. 왜냐하면 그러한 번역은 동작 종결적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21장 8절, “길에 옷을 퍼며…”에서 ‘퍼며’는 단순 과거 동사이기 때문에 ‘꿨고’, ‘퍼고’ 또는 ‘꿨으며’로 번역해야 한다. 『게일역』과 『개역』은 『구역』의 오역을 그대로 답습했다. 『새번역 신약』은 ‘…퍼고’로, 『200』은 ‘…깔았고’로, 『표준개정』은 ‘…꿨으며’로, 『성경』은 ‘…깔았다’로 옳게 번역했으며 『공동개정』은 ‘…퍼놓는가 하면’으로 역시 옳게 번역했다.

26장 65절은 “대제사장이 제 옷을 씨즈며 굴으되”이다. ‘찢으며’는 단순 과거 동사이기 때문에 ‘…찢고’로 번역해야 옳다. 『게일역』과 『개역』은 『구역』의 오역을 답습했다. 『새번역 신약』, 『공동개정』, 『200』도 ‘…찢으며’라고 틀리게 번역했다. 만일 원문이 그러한 의미를 표현하려 했다면 ‘찢다’는 동사를 미완료로 하거나 현재 분사로 바꿨을 것이다. 오직 『표준개정』과 『성경』만이 ‘…찢고’라고 옳게 번역했다.

28장 4절은 ‘무서워 썰며 죽은 사람과 꺾게 되느니라’이다. ‘썰며’는 단순 과거다. 그러므로 동작 지속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썰며’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이다. ‘떨었고’로 번역해야 한다. 『게일역』과 『개역』은 『구역』의 오역을 답습했다. 『새번역 신약』, 『공동개정』, 『200』, 『성경』은 ‘…떨다가’로 번역했다. ‘떨다가’는 ‘죽은 사람처럼 되는 사건’보다 선행한 것을 나타낸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원문이 이렇게 지속적 동작의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려 했다면 미완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이다. 『표준개정』은 ‘…떨었고’로 번역했다.

28장 12-13은 “군스들의게 돈을 만히 주며 굴으되” 이다. ‘주며’는 단순 과거다. 그러므로 ‘주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게일역』과 『개역』은 『구역』의 오역을 답습했다. 『새번역 신약』, 『공동개정』, 『200』, 『성경』도 ‘…주며’ 또는 ‘…주면서’로 번역했다. 그것은 틀린 번역이다. 오직 『표준개정』만 ‘…집어 주고’로 번역했다. ‘…하고’와 ‘…하며’ 사이에 의미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단지 ‘아!’하는

탄성과 ‘어!’하는 탄성 사이의 차이와 같은 단순한 어감(語感)만 연관되지 않고 중대한 신학적-교리적 논쟁점과도 연관되어 있다.

26장 26-28절<sup>1)</sup>은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더불어 행하신 최후의 만찬의 한 장면이며 동시에 그리스도교에서 시행한 최초의 성만찬 예식을 예행해 보인 장면이다. 여기에서 예수만이 단독 행위자로 출연한다. 그의 행위는 입으로 말씀하는 행위와 손으로 동작하는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sup>2)</sup> 최후의 만찬 장면은 크게 두 판으로 구성되는데, 떡을 나누는 떡판과 잔을 나누는 잔판이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규명해야 하는 것은 떡판의 행위와 잔판의 행위가 각각 어떠한 순차,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느냐이다. 떡판은 일곱 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차례대로 진행되었고, 잔판은 그 이후 나오는 다섯 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떡을 떼어 주신 행위와 이 떡을 두고 말씀하신 행위가 어떠한 선후 관계나 상호 관계로 진행되었으며, 잔을 주신 행위와 잔을 두고 말씀하신 행위가 어떠한 관계로 진행되었는지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성만찬 논쟁의 핵심 쟁점과 관련된다.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만찬에 사용된 두 물질인 떡과 포도주가 예수의 몸과 피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하는 화체설(化體說)을 지지하고, 개신교회는 대체로 떡과 포도주는 예수의 몸과 피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상징설(象徵說)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 속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주장하는 절충적 입장을 공재설(共在說)이라고 한다. 떡에 대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신 말씀과 포도주에 대해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신 말씀을 주석적으로는 떡의 의미와 포도주의 의미를 해석한 말씀이라고 한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화체설의 견해에서 생각해보

- 
- 1) <26:26-28> “26 음식 먹을 쟈에 예수ㅣ 썩을 가지샤 축샤하시고 쟈여 데자들을 주시며 곶으샤디 밋아 먹으라 이거시 내 몸이라 흥시고 27 쏘 잔을 가지샤 축샤하시고 더희게 주시며 곶으샤디 다 이거술 마시라 28 이거슨 언약호는 내 피니 여러 사름의 죄 사함을 위흐야 흘넘이니라”
  - 2) 말씀하는 행위는 ‘축샤하시고, 곶으샤디, 밋아, 먹으라, 흥시고, 축샤하시고, 곶으샤디, 마시라’이고 동작하는 행위는 ‘가지샤, 쟈여, 주시며, 가지샤 주시며’이다.

자. 떡판의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 시점은 언제인가? 만찬 상에 배설되었을 때 이미 그렇게 변해 있었는가? 예수께서 떡을 손으로 잡으셨을 때 그렇게 변했는가?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변했는가? 예수께서 떡을 떼실 때 변했는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실 때 변했는가? 예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하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말씀의 위력으로 변했는가?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신 행위와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행위는 어떠한 선후 관계로 일어났는가? 이러한 신학적이며 주석학적인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번역 문제로 되돌아와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 사용된 동사의 시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지사’와 ‘축사하시고’는 단순 과거 분사고 ‘제여’는 단순 과거 동사고 ‘주시며’는 단순 과거 분사고 ‘끓으샤되’는 단순 과거 동사다. 단순 과거는 분사이거나 동사이거나 그 행위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다음의 행위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뜻하는 법이 없다. 『구역』에서 ‘주시며’라고 번역된 낱말은 단순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주시고’나 ‘주시고서’로 번역해야 옳다. ‘주시며’라고 번역해 놓으면 주시는 행위와 그 다음 말씀을 하는 행위가 동시에 함께 진행되었다는 오해를 일으킨다. 잔판도 마찬가지이다. 잔판에서 ‘주시며’라는 행위는 단순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난 말씀 행위 이전에 이미 종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식탁에서 떡과 잔을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변화시켜서 제자들에게 건네졌던 것이 아니다. 이 두 말씀은 나누어주신 행위가 종결된 후에 발화되었다. 만일 원문이 ‘주시며’라는 뜻을 표현하려 했다면 단순 과거 분사 대신에 현재 분사를 사용했을 것이다. 이 관계는 마가복음의 병행절을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sup>3)</sup> 여기

---

3) “23 쯔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너희에게 주시니 다 마시느니라 24 쯔 끓으샤되 이거슨 언약하는 내 피니 여러 사를 위하여 흘림이니라” 마가복음에는 잔을 주는 예수의 행위와 잔을 마시는 제자들의 행위가 종결된 후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마태복음서의 기술에는 제자들이 참여한 행위의 몫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는 것과 달리, 마가복음서에는 잔판에서 제자들이 모두 예수가 주신 잔을 마셨다는 언급이 덧붙여 있다. 『구역』에 번역된 그대로의 마태복음서의 기록에 의거하여 판단한다면, 떡과 잔은 예수의 손에서 제자들의 손으로 건네지는 과정 중에 있을 따름이지 제자들이 받아서 먹는 행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셈이다. 이러한 넉센스는 번역상의 중대한 착오에서 비롯된다. 마태복음의 떡판과 잔판에서도 ‘주시고’라는 행위 다음에 일어난 생략된 행위가 있다. 그것은 제자들이 떡을 받아서 먹고 잔을 받아서 마신 행위이다. 제자들의 행위가 없는 성만찬은 한쪽 바퀴뿐인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 『개일역』과 『개역』은 『구역』의 이 오역을 그대로 답습했다. 그 뿐만 아니라 『새번역 신약』, 『공동개정』, 『200』, 『성경』, 교회의 성만찬 예식문에도 이러한 오역이 고스란히 존속된다. 오직 『표준개정』만 ‘~주시고’로 올바르게 번역했다.

16장 22절은 ‘베드로가 예수를 붓들고 간헐야 골으딘….’이다. ‘붓들다’는 단순 과거 분사이다. 그러므로 ‘붓들고’라는 『구역』의 번역은 정확하며 단 하나의 번역본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후대의 번역은 이 선례를 충실히 따랐다. 진행의 의미로 ‘잡아당기며’라고 잘못 번역한 것은 유일하게 『200』이다. ‘잡아당기고’라고 번역해야 한다.

그리스어 단순 과거 분사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마치 “문 닫고 들어오너라”라는 우리말을 외국어로 번역할 경우에 마주치는 것과 같은 난처함이다. 이 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을 닫고 들어오는 방법은 없다. 이 말은 결국 들어올 때 문을 반드시 닫으라는 뜻일 것이다. 이 말을 영어로 바꾸어 보면 “Please come in and shut the door.”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리에 맞게 “들어오고서 문 닫아라”라고 말하지 않는가? 이것은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우리의 특수한 언어 관행에 속한다. 바로 이와 유사한 것을 그리스어 성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2장 7-8절은 “이에 헤롯이 7만히 박스를 불너 별이 나타는 썩을 썩세히 뭇고 벳을네헴으로 보내며 날러 골으되 ….”이다. ‘보내며’는 단순 과거 분사이다. 그렇다면 ‘보내다’는 행위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하다’라는 행위에 선행하여 종결된 것임을 뜻한다. 여기에서 우리말의 “문 닫고 들어오너라.”에서와 같은 논리적 모순에 봉착한다. 보내는 행위가 종결되었다면 박사들은 이미 떠나고 그 자리에 없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보내며’나 ‘보내면서’ 그 다음 말을 한 것이라고 이해하려면 왜 ‘보내다’라는 분사를 현재 분사로 표현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이 생긴다. “문 닫고 들어오너라.”라는 우리말이 “들어오고서 문을 닫아라.”를 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말을 해서 보냈다는 것을 뜻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말하다’ 쪽을 분사 구문으로 표현하고 ‘보내다’를 문장의 본동사로 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말은 “들어오고 문 닫아라”고 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말에서는 들어오는 행위가 더 중요한 관심이고 성서 본문에서는 말의 내용이 더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문장의 본동사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이 문장을 굳이 실제의 사리(事理)와 언어 원리에 어울리게 번역해야 한다면 ‘…보낼 때에 날러 골으되’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게일역』, 『개역』, 『새번역 신약』, 『공동개정』, 『200』, 『표준개정』, 『성경』은 모두 하나 같이 ‘…보내며/보내면서’로 번역했다. 유일한 예외는 『로스역』이 ‘…별 나타는 썩을 힐문하고 보너여 벳니임에 가라하며 일오되….’로 번역한 것이다.<sup>4)</sup> 우리는 이 문제를 어물쩍 처리하고 넘겨서는 안 된다. 통렬하게 고민한 후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0장 5절은 “이 열들을 내여보내시며 명하야 골으샤되”이다. 『게일역』과 『개역』뿐만 아니라 『공동개정』, 『200』, 『성경』도 『구역』의 이

4) 그러나 거의 모든 영서 성서와 독일어 성서들은 사리(事理)보다는 문법적 원리에 더 충실하게 단순 과거 분사를 과거 본동사로 처리하여 “...sant them to Bethlehem and said...”/ “...sandte sie nach Bethlehem und sagte...”로 번역했다.

오역을 답습했다. 원문으로는 ‘내어보내다’와 ‘명하다’는 둘 다 단순 과거 분사이다. ‘굴으샤디’는 ‘명하다’의 내용을 구성하는 현재 분사이다. 그러니까 ‘내어보내다’와 ‘명하다’의 관계는 내어 보낼 때 명했다고도 볼 수 있고 명해서 내어 보냈다고도 볼 수 있다.<sup>5)</sup>

11장 2절에서 사용된 ‘보내다’의 단순 과거 분사는 우리말의 모든 번역이 옳게 ‘보내어’로 번역했다. 21장 1-2절과 37절은 2장 7-8절의 설명과 동일하며, 27장 19절은 11장 2절의 설명과 동일하다.

## 2.2. 대등 접속사 ‘가르’(γάρ)를 번역하는 데 많은 무리(無理)를 일으켰다

우리말의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등은 앞 문장과 뒷 문장 사이에 오는 접속 부사이다. 이것들은 영어의 “and, but, so” 따위의 대등 접속사와 똑같은 기능을 하지 않는다. 영어의 대등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여 중문(重文)을 만드는 기능을 하지만, 우리말의 접속부사는 독립된 두 문장 사이에서 시간적인 선후나 병렬 관계 또는 논리적인 연관 관계로 중개 역할을 한다. 어쨌든 이러한 대등 접속사가 사용된 문장을 번역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영어에서 원인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 “because”나 때를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 “when”을 번역하는 데도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영어의 대등 접속사 가운데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for”는 대다수의 경우에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영어의 “for”에 대응하는 그리스어 대등 접속사가 ‘가르’(γάρ)이다.<sup>6)</sup> 마태복음에서 대등 접속사 ‘가

5) 『새번역 신약』은 ‘~이 열 두 사람을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다...’로, 『표준개정』은 ‘~이들 열둘을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로 번역했다. NRSV, NEB, NIV, NASB, NAB 등 영어 성경은 “...sent out these twelve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로 번역했다. 다만 NASB와 NAB는 부사구를 ‘after instructing them thus...’로 약간 달리 표현했을 따름이다.

6) 1) “일어나거라. 아침이야.” 영어로는 “Get up, for it is morning.” 2) “새벽이로구나. 새들이 지저귀고 있으니.” “It is dawn, for the birds are singing.” 3) “비가 많이 왔구나. 강물이 부풀어 올랐으니.” “It must have rained much, for the water

르'가 약 125회 사용되었다. 『구역』은 이 가운데서 80여 회는 이 접속사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번역했다. 그것은 잘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어 원문에서 이 접속사는 전후의 타당한 합리적 이유나 명백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붙여진 것이 아니라 앞 문장과 뒤 문장 사이에 논리 관계가 그다지 명확하지 않은 데도 습관처럼 끼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구역』이 이러한 종류의 ‘가르-’ 문장을 번역하지 않고 넘긴 것을 번역 소홀이라고 비판받아야 할 경우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구역』이 이 ‘가르-’ 문장을 억지로 번역하여 저지른 과오들이 무엇인지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2.2.1. 접속사 ‘가르’를 ‘대개’(大蓋)라는 부사어로 번역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sup>7)</sup>

of the river has swollen.” 위에서 1)의 “for-” 문장은 일어나라는 명령을 내리는 이유로 제시되었고, 2)와 3)은 “새벽이다”와 “비가 많이 내렸다”는 판단을 내리는 데 논리적 근거로 제시되었다. 영문으로는 전후 문장을 뒤바꿀 수 없지만 우리말로로는 1) “아침이니/아침이 되었으니 일어나거라.” 2) “새들이 지저귀고 있으니/있는 것을 보니 새벽이로구나.” 3) “강물이 부풀어 올랐으니/오른 것을 보니 비가 많이 왔구나”라고 할 수 있다.

- 7) “대개 저도 늪의 수하에 있고”(8:9). 『로스역』도 ‘딤키’를 사용하여 번역했다. 『게일역』과 『개역』은 이것을 생략했다; “대개 내가 옳은 사람을 부르러 온 거시 아니오...”(9:13). 『로스역』, 『게일역』, 『개역』은 이것을 생략했다; “무릇 잇는 사람의게는 주어 너덕히게 후되”(13:12). 『로스역』은 ‘무릇’으로, 『게일역』과 『개역』은 『구역』처럼 ‘무릇’으로 번역했다. 『새번역 신약』과 그 이후의 모든 번역들은 이것을 생략했다; “대개 헤롯이 그 동성 빌립의 안희 헤로디아의 일 노...”(14:3). 『게일역』은 ‘大抵’로 번역했고 『개역』은 생략했다; “대개 므음에서 나오는 거슨...”(15:19). 『로스역』은 ‘딤키’로 번역했으나 『게일역』과 『개역』은 생략했다; “대개 어딤던지 두세 사람이 내 일힘으로”(18:20). 『게일역』과 『개역』은 생략했다; “대개 어미의 티로브터 고자 된자도 있고”(19:12). 『게일역』은 ‘大抵’로 번역했고 『개역』은 생략했다; “대개 턱국은 집 주인이 일은 아침에 나가...”(20:1). 『게일역』은 ‘大抵’로 번역했고 『개역』은 생략했다; “대개 청흙을 밧은 자는 만히되 티흙을 닦은 자는 적으니라”(22:14). 『게일역』은 ‘大抵’로 번역했고 『개역』은 생략했다; “대개 너희 선심은 흥나썩이니”(23:8). 『게일역』은 ‘大抵’로 번역했고 『개역』은 생략했다; “대개 여러 사람이 내 일힘으로 와서”(24:5). 『게일역』과 『개역』은 생략했다; “대개 거긔 그리스도와 거긔 선지자들이 니러나”(24:24). 『게일역』과 『개역』은 생략했다; “대개 아모 사람이던지 잇닌자의게

마태복음서에서는 원인을 표시하는 종속 접속사 ‘호티’(ὅτι)가 이유를 표시하는 등위 접속사 ‘가르’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약 40회나 된다. 『구역』은 이러한 ‘호티’를 또한 ‘대개’라는 부사를 사용하여 번역한 경우가 있다.<sup>8)</sup>

2.2.2. ‘가르’ 절을 앞의 말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것으로 번역하려는 의도는 보이지만 효과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3장 3절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니 닐녇스디 … 훤이러라”이다. 『로스역』, 『게일역』, 『개역』은 모두 이 구절의 접속사 ‘가르’의 의미를 무시하고 종결형 ‘하니라’나 ‘하였느니라’로 끝맺었다. 『구역』은 ‘훤이러라’라는 종결형을 사용하여 이 구절이 앞 구절에 진술된 사태에 대한 어떤 이유나 근거를 표현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했다. 여기서 제기해야 할 물음은 첫째로는 우리말에서 ‘…口이라’라는 형식의 종결 어미가 과연 이유나 근거를 표시하는 의미로 사용되는가와 둘째로는 원문이 그러한 의미를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느냐이다. 첫째 물음은 국어 전문가들이 답할 문제이겠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는 언중(言衆)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그러한 느낌을 전혀 느낄 수 없다. 2절에는 “회기하라 턴국의 갓가오니라”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선포가 제시되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문장 앞에 대등 접속사 ‘가르’가 붙어

는 더 주어 풍족하게 호고”(25:29). 『게일역』은 ‘大抵’로, 『개역』은 ‘무릇’으로 번역했다.

8) “대개 하느님이 회를 악인과 선인의게 빗취게 하시며”(5:45). 『로스역』도 ‘되’로 번역했으나 『게일역』은 이것을 생략했고, 『개역』은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이라는 형식으로 번역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스옵나이다”(6:13). 『로스역』은 이 구절 전체를 생략했고 『게일역』, 『개역』은 이 접속사를 생략했다; “대개 네가 하느님의 뜻을 생각지아니하고 사름의 뜻만 생각한다 하시고”(16:23). 『게일역』과 『개역』은 이것을 생략했다; “대개 생각지 못할 췌에 인즈가 오리라”(24:44). 『게일역』과 『개역』은 이것을 생략했다.

있으므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은 회개하라는 선포 이유나 근거로 제시된 셈이다. 그런데 이 2절 다음에 3절이 다시 이유 또는 근거를 표시하는 대등 접속사 ‘가르’가 붙여져 이어진다. 그렇다면 구문 형식상으로 3절은 2절의 사태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인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논리적 연관 관계로 연결되었다기보다 2절의 사태를 부연해서 진술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볼 수 있다. 영어에는 그리스어 ‘가르’에 대응하는 대등 접속사 “for”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 의미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for”라는 접속사를 기계적으로 사용하여 번역하더라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영어 성경 가운데 2절과 3절 사이에 명확한 논리적 관계가 없음을 인식하고 “for”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고 번역한 것은 NRSV, NEB, NIV, NASB, NAB, CEV 등이다.

6장 24절은 “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못할 거시니 혹 이를 뉘워 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녀이며 더를 경히 녀임이라”이다. 『개일역』과 『개역』도 『구역』처럼 ‘...여김이라’로 번역했다. 『새번역 신약』은 ‘...여기기 때문이다’로 번역했고 『공동개정』, 『200』, 『표준개정』, 『성경』은 접속사의 의미를 무시하고 번역했다. NAB, NIV는 접속사를 생략하고 번역했다.

7장 29절은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을 이상히 녀임은 29 그 가르치시는 거시 권세 잇는자와 궂고 서기관과 궂지하니함일너라”이다. 『로스역』은 ‘...그 가르치물 경동호문 ... 갖지안이미더라’로, 『개일역』은 ‘...異常히 녀이니...궂지아니함이러라’로, 『개역』은 『개일역』과 같이 ‘...놀래니 이는...궂지 아니함일러라’로 번역했다. 『새번역 신약』은 ‘그것은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로, 『공동개정』은 ‘~때문이었다’로, 『200』, 『표준개정』, 『성경』은 ‘~때문이다’로 번역했다. 29절이 앞 절의 무리들이 왜 놀랐는지 그 이유를 제시한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 NIV는 “because”를 사용하여 번역했다. 우리말 번역상의 문제는 ‘~함일러라’라는 종결형 어미 속에 그러한 논리적 의미 관계가 표현되어 있느냐이다.

9장 16절은 “새 가음으로 헨 옷을 깎는자가 엮는 거슨 기운 거시 그 옷을 당기여 히여짐이 더 흠이오”이다. 『로스역』, 『게일역』, 『개역』은 모두 『구역』과 거의 같은 형식으로 번역했다. 『새번역 신약』, 『200』, 『성경』은 ‘~때문이다’로 번역했고 『공동개정』, 『표준개정』은 접속사의 의미를 무시하고 번역했다.

9장 17절은 “새 술을 헨 가족부디에 넛치안는 거슨…부디를 브릴가 두려워 흠이니”이다. 원문으로는 17절에는 16절과 달리 접속사 ‘가르’가 사용되지 아니했다. 그러나 『로스역』, 『게일역』, 『개역』은 『구역』과 같이 16절의 구문에 맞추어서 ‘가르’를 삽입하여 번역했다. 『새번역 신약』, 『공동개정』, 『200』, 『표준개정』, 『성경』은 원문에 맞추어 번역했다.

9장 21절은 “제 므음에 그 옷만 문져도 낫겟다 흠이라”이다. 『게일역』과 『개역』은 『구역』대로 번역했다. 21절은 어떤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를 제시한 것이다. 『새번역 신약』은 ‘~때문입니다’로 번역하고, 『공동개정』, 『200』, 『표준개정』, 『성경』은 ‘~생각했던 것이다’로 번역하여 이유를 나타냄을 표현했다.

10장 35절은 “내가 온 거슨 아들이 아버와 불화하며 쫓이 어미와 불화하며 며느리가 식어미와 불화하게 함이니”이다. 『로스역』은 ‘디기’를 사용하여 번역했고 『개역』은 『구역』과 같이 번역했으나 『게일역』은 접속사를 무시하고 번역했다. 『구역』과 『개역』의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왜곡했다. 35절은 34절의 내용에 대한 근거 제시이거나 부연 설명이다. ‘내가 온 것은 …불화하게 함이라’는 구문은 ‘내가 왔다는 것’이 진술할 명제이고, ‘…불화하게 함이라’라는 말은 이 명제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는 문장이다. 35절 자체로는 말이 성립되지만 34절과 관련지어 볼 때에는 용인될 수 없는 오역이다.

12장 34절은 “독샤의 종류들아 너희는 악하니 엇더케 도흔 말을 헛겟느냐 므음에 가득한 거시 입으로 나와서 말흐는 거시니”이다. ‘므음에 가득한 거시 입으로 나와서 말흐는 거시니’는 앞에 나온 말에

대한 이유로 제시된 ‘가르.’ 절인데 『구역』과 『계일역』은 접속사 ‘가르’의 뜻을 무시하고 번역했으나 『개역』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로 번역했다. 『새번역 신약』은 ‘~때문이다’로 번역했다. 『공동개정』, 『200』, 『표준개정』, 『성경』은 ‘~하는 법이다’로 번역했다.

13장 15절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저희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겼스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니고 마음에 씌되라 회개하여 나의 고침을 받을가 두려워하도다 하였스되”이다. 원문에는 14절과 15절은 13절의 기이한 말을 해명하기 위하여 끌어낸 말이다. 그런데 이 끌어낸 말 앞에 근거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14절 후반절과 15절은 이사가 인용문인데 15절에 ‘가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다. 그렇다면 15절은 14절 후반절의 내용에 대한 이유나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구역』과 『계일역』은 여기서 ‘가르.’라는 접속사는 전적으로 무시하고 번역했으나 『개역』은 ‘이는…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로 번역하여 ‘가르.’ 문장의 의미를 살리려고 했지만, 이것은 15절 상반절 즉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라는 말에 대한 이유 설명처럼 되어 있다. 오역이다. 『새번역 신약』과 『성경』은 ‘그것은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고 귀가 둔하고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이다’로 번역하여 이 문장이 원문대로 14절 말에 대한 이유라고 올바르게 밝혔다. 『공동개정』은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은 감은 탓이니’로 번역하여 『새번역 신약』과 『성경』과 같은 의미를 표현했다. 『200』은 『개역』과 유사하게 번역했으나 ‘…함이라’라는 구절이 15절 전반절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인지 15절 전체가 14절에 대한 이유로 제시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표준개정』은 ‘…하러는 것이다’로 번역하여 15절 상반절에 대한 이유를 제시한 것처럼 표현했다.

14장 3-4절은 “3 대개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안희 헤로디아의 일노 요한을 결박하여 옥에 가도기는 4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그 녀인을 취하는 거시 옳치 안타 흠이라”이다. 원문으로 3절도 ‘가르.’ 문장이고

4절도 ‘가르-’ 문장이다. 3절은 2절의 사실의 경위를 서술한 것이고 4절은 3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구역』의 번역은 형식상으로는 ‘대개’로 시작하여 ‘흠이라’로 끝났으므로 3-4절 전체가 무엇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4절이 3절의 명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개일역』은 ‘대개’를 ‘대저’로, ‘옥에 가도기’를 ‘獄에 가도니’로 바꾸었으나 『구역』과 다름이 없다. 『개역』도 『구역』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따랐다. 『새번역 신약』, 『공동개정』, 『200』, 『표준개정』, 『성경』도 ‘흠이라/함이었다’를 ‘때문이었다’로 바꾼 것 이외는 이전의 번역들의 구조를 대체로 그대로 따르고 있다. 영역 성서 가운데 4절을 “for”대신에 “because”를 사용하여 번역한 것은 NRSV와 CEV이다.

17장 15절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녀이소서 더가 간질노 심히 고상하여 여러번 불에도 너머지며 물에도 너머지니”이다. ‘그의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한다’는 문장은 “because”라는 종속 접속사로 이어진 이유절(理由節)인데 그것은 그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어야 할 이유로 제시되었다. ‘여러 번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는 문장은 ‘가르-’ 절인데 그의 아들이 고생하고 있는 구체적 정황을 해주는 문장이다. 『구역』과 『개일역』과 『개역』은 ‘그의 아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이유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유로 제시했기 때문에 오역이다. 『공동개정』이 원문의 문장 구조에 가장 가깝게 번역했고 나머지 번역은 무난하지만 “because-” 절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한 단점이 있다.

26장 12절은 “그 녀인이 내 몸에 이 기름을 붓는 거슨 내 장수를 위하야 흠이니라”이다. 원문에는 10절에서 12절까지 세 개의 ‘가르-’ 문장이 잇달아 나온다. 그것은 10절 상반절에 나온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는 말씀에 대한 논증으로 제시된 것이다. 10절은 그 여자는 예수의 장사를 위하여 그의 몸에 기름을 부었기에 괴롭힘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개진한 것이다. 그러나 『구역』과 『개일역』과 『개역』

은 10절 후반절이 10절 상반절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오역이다. 나머지 후대의 모든 번역들이 ‘이 여자는 내 장사를 위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기 위한 것이다’라고 번역한 것은 『구역』이 남겨준 번역투의 영향이다.

26장 28절은 “이거슨 언약하는 내 피니 여러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니라”이다. 28절은 ‘가르’로 연결된 문장이다. 그것은 25절의 말씀, “이 잔을 마셔라”라는 명령에 대한 이유로 제시된다. 『개일역』과 『개역』은 ‘…흘리는 거시니라’, ‘…언약의 피니라’로 번역했다. 그것은 ‘가르’라는 접속사의 의미를 무시하고 번역하면서도 28절 전체가 25절과 연관하여 이해하도록 하기 때문에 올바른 번역이다. 그러나 『구역』은 ‘여러 사람을 위하여 흘림이니라’는 말은 ‘이것은 언약하는 내 피다’라는 말씀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에 오역이다. 28절 후반절은 피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다.

28장 6절은 “그가 여기 계시지안코 전에 말씀하시던대로 살아나셨스니 와서 주의 누으셨던 곳을 보고”이다. ‘그는 전에 말씀하시던대로 살아나셨다’는 문장은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접속사 ‘가르’로 이어져 있다. 이 ‘가르’라는 접속사의 의미를 굳이 어떤 낱말 속에 나타내지 않아도 되지만, 『구역』과 『개역』처럼 ‘가르’ 문장과 그 앞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 구조에 결합하는 것은 오역이다. 다행하게도 후대의 모든 번역들은 이 두 문장을 별개의 문장으로 단절해 놓았다.

1장 20절은 “다윗의 즰손 요셉아 네 안히 마리아 다려오기를 무서워 마라 더의게 잉태한 거시 성신으로 되였스니”이다. 20절 후반절은 20절 전반절의 명령에 대한 이유로 제시된 것이지 그 후속 문장에 연관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되였다’라는 종결형으로 끝맺어야 한다. 『개일역』과 『개역』은 『구역』과 달리 20절을 두 개의 문장으로 끊어서 잘 번역했다. 나머지 번역들도 그렇게 했다.

‘가르’ 문장 번역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팔복

선언 번역이다. 팔복 선언은 각각의 복 선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는 문장이 이어져 있다. 이 문장은 접속사 ‘호티’로 연결되어 있다. ‘호티’라는 접속사는 원래는 인과 관계상의 선행하는 원인을 제시하는 종속 접속사다. 그러나 팔복 선언의 각개의 복 선언 다음에 이어진 ‘호티’ 문장이, 선언된 복에 선행하여 일어난 원인이 되는 어떤 사태나 사건을 지칭하는 것일 수 없으므로 여기에 사용된 종속 접속사 ‘호티’를 이유를 나타내는 대등 접속사 ‘가르’의 의미로 번역해야 한다. 모든 영역 성서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대등 접속사 “for”를 사용하여 번역했다.9) 『구역』과 『개역』과 『새번역 신약』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고 단지 각각의 두 번역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공통점이 있다. 우선 『구역』과 『개역』은 상반절의 복 선언 부분을 종결형 문장으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있나니/잇느니’라는 연결형 동사로 마감했다. 또 『구역』과 『새번역 신약』은 이유를 제시하는 접속사의 의미를 생략하고 번역했다. 세 번역의 단독적 특징은 우선 『개역』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의 의미를, ‘~임이요’라는 형식으로 표현하려 했으며, 『새번역 신약』은 복 선언 부분을 종결형 동사로 끝맺었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번역 유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한가?10)

- 
- 9) ‘3 마음이 간난한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너희거시오 4 잇통하는자는 복이 있느니 너희가 위로함을 받을 거시오 5 온유한자는 복이 있느니 너희가 싸움 츠지할 거시오’(구역);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개역); ‘3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4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5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얻을 것이다.’(새번역).
- 10) 우리는 이 번역 문제의 초두에 영어의 “for-” 문장에 대응하는 대표적 우리말 문장을 보기로 제시했다. 1) 일어나거라. 아침이다. 2) 아침이다. 새들이 지지귀고 있다. 3) 비가 많이 왔음에 틀림없다. 강물이 불었다. 이 세 예문을 『구역』의 번역 유형으로 바꾸어 보면, 1) 일어나야 하나니 아침이다(O). 오히려 “아침이니 일어나야 하나니라.”가 더 좋은 표현이다. 2) 아침이니 새들이 지지귀고 있다(X). 의미가 뒤바뀌었다. 아침이 된 것이 새들이 지지귀고 있는 이유로 제시되었다. 오히려 “새들이 지지기고 있으니 아침이다.”가 더 좋은 표현이다. 3) 비가 많이

『구역』, 『개역』, 『새번역 신약』의 문장론적 특징은 『새번역 신약』이 각개의 복 선언을 독립된 두 문장으로 구성한 것과 달리 『구역』과 『개역』은 그것을 한 문장으로 구성한 것이다. 『구역』과 『개역』의 ‘~는 복이 있나니’라는 문장은 ‘~이니라/~임니라’라는 문장의 의미를 보충적으로 덧붙이는 종속문으로 느껴진다. 그러한 구문 형식으로 표현하려면 오히려 ‘하늘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사리에 맞을 것이다. 다른 표현 방법은 『새번역 신약』의 문형처럼 두 개의 독립 문장으로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13장 16절은 “너희 눈이 복이 있음은 봄이요 귀가 복이 있음은 드름이니라”이다.<sup>11)</sup> 시청자의 눈과 귀에 대한 이 복 선언은 원문으로 팔복 선언과 그 문장 구조가 똑같다. 『구역』, 『개역』, 『새번역 신약』이 공통적으로 팔복 선언에서처럼 시적 문구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산문적 형식으로 풀어서 번역했다. 팔복 선언식으로 시적 형식으로 바꾸어 쓴다면, ‘너희 눈은 복이 있나니 보고 있나니라’가 될 것이다.<sup>12)</sup> 영역 성서 가운데서도 이 문장을 팔복 선언에서처럼 “for”를 사용하여 번역하는 대신에 “because”를 사용하여 번역한 성서는 NEB, NRSV, NASB, NAB, NIV 등이다.

---

왔음에 틀림없나니 강물이 불었다(O). 오히려, “강물이 불었으니 비가 많이 왔음에 틀림없다.”가 더 좋은 표현이다. 『개역』의 번역 유형으로 바꾸면, 1) 일어나야 하나니 아침임이라(?). 2) 아침이니 새들이 지저귀고 있음이라(X). 3) 비가 많이 왔음에 틀림없나니 강물이 불었음이라(?). 우리말에서 ‘...임이라’ 또는 ‘...음이라’는 표현이 과연 『개역』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 언중이 이해하는지 검정해 보아야 할 것이다.

- 11)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개역),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보고 있으니 복이 있고 귀는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새번역).
- 12) 『개역』은 ‘너희의 눈은 복이 있나니 보고 있음이니라’, 『새번역 신약』은 ‘너희의 눈은 복이 있다. 그들은 보고 있다.’로 될 것이다.

2.3. ‘A가 아니고 B’라는 형식의 구문을 번역하는 경우에 ‘A가 아니고 다만 B’ 또는 ‘A가 아니고 오직 B’라는 식으로 ‘다만’ 또는 ‘오직’ 같은 불필요한 말을 덧붙였다.<sup>13)</sup> 올바로 번역한 경우도 많이 있다

올바로 번역한 경우는 ‘성흔 사람은 의원이 쓸티 업고 병든 사람이 라야 쓰느니라’(9:12), ‘이 으희가 죽은 거시 아니라 잔다 흐시니’(9:24), ‘화평케 흐러 온 거시 아니오 병기를 니르키러 왓노라’(10:34), ‘입에 드러가는 거슨 사람을 더럽게 흐지 못흐되 입에서 나오난 거시 사람을 더럽게….’(15:11)가 있고 이 밖에도 16:12, 17, 23; 18:30; 19:6; 20:23, 26, 28; 22:30, 32; 27:24이 있다.

2.4. ‘앉다-앉아 있다’, ‘서다-서 있다’, ‘깨다/깨어나다-깨어 있다’, ‘눕다-누워 있다’의 대조에서 보듯이 어떤 동사의 동작 행위와 어떤 행위의 지속 상태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했다<sup>14)</sup>

13) ‘사람이 썩으로만 살거시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슴으로 살 거시 라’(4:4);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아니하고 오직 등경 우에 두어’(5:15); ‘우리를 시험에 들지말게 흐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흐옵쇼셔’(6:13); ‘님의게 보이 라고 흠이 아니오 다만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찌 보임이니’(6:18). 이 밖에 7:21; 8:4; 9:13; 10:20; 18:12; 26:39도 있다.

14) ‘어두은디 안즌 빅성이 큰 빛출 보았고’(4:16). 『개일역』과 『개역』은 『구역』대로 『새번역 신약』, 『표준개정』, 『성경』은 ‘앉아 있는’으로, 『공동개정』은 ‘사는’으로 번역했다; ‘마태라 흐는 사람이 세관에 안즌 거슬 보시고’(9:9). 『개역』은 『구역』대로, 『개일역』은 ‘안젓슴을’으로, 후대의 나머지 번역들은 모두 ‘앉아 있는 것’으로 번역했다; ‘소경 둘이 길가에 안젓다가 예수씨서 지나가신다 흠을 듯 고’(20:30). 『개일역』과 『개역』은 『구역』대로, 후대의 나머지 모든 번역들은 ‘앉아 있다’로 번역했다; ‘네가 내 올흔 편에 안져 내가 네 원슈를 네 발아래 두기스 지 기다리라’(22:44). 지속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구역』과 『개일역』은 ‘안져 기다리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개역』의 ‘앉았으라’보다는 ‘앉아 있으라’가 더 바른 표현일 것이다. 『개역』은 이 인용문의 출처인 시편 110:1에서 ‘앉으라’라는 동작 동사의 형태로 틀리게 번역했다. 나머지 모든 번역들은 ‘앉아 있어라’로 번역했다; ‘하늘을 그르쳐 땡세흐는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에 안즈신 이를 그르쳐 땡세흠이니’(23:22). 『개일역』, 『개역』, 『새번역 신약』, 『공동개정』은 『구

26장 58절은 “베드로가 대제사장 의 아문에 드러가 관속과 갖치 안져서 씻나는 거슬 보고져 하더라”이다. 『구역』과 『개일역』의 번역은 동작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상태의 지속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상황에서도 두 가지 처신이 다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번역상 둘 중의 하나가 옳다. 왜냐하면 첫째로 여기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이기 때문에 지속의 의미로 번역해야 한다. 둘째로 ‘관속들 틈에 앉았다’는 말은 사리에 맞지만 ‘관속들과 같이/함께 앉았다’는 말은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베드로와 관속들이 앉는 동작을 일제히 함께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역』은 ‘앉았더라’라는 동작의 의미로 잘못 번역했고 영역 성서 가운데도 NASB, NAB, NIV은 “sat down”으로 틀리게 번역했다. NEB는 “sat down”으로 번역하면서도 “with the attendants”라 하지 않고 “among the attendants”라고 하여 사리에 맞게 고쳤다. 『새번역 신약』, 『공동개정』, 『200』, 『표준개정』, 『성경』은 모두 ‘앉아 있었다’로 올바르게 번역했다.

26장 69절은 “쎄에 베드로가 밧겿 쏘에 안졌더니 흐 비즈가 나아와”이다. 『개일역』과 『개역』은 『구역』의 오역을 그대로 답습했다. 후대의 나머지 번역들은 모두 ‘앉아 있었는데’로 바르게 번역했다.

27장 19절은 “감스가 직판자리에 안즐식 그 안히가 사름을 보내여 골으디”이다. 『개일역』과 『개역』은 ‘앉았을 때에’로 번역했다. ‘앉아 있었다’는 지속의 의미로 번역해야 옳다. 후대의 나머지 번역들은 그렇게 했다. 다만 『공동개정』은 같은 의미로 ‘재판을 하고 있을 때에’로 번역했다.

27장 61절은 “쑤 막달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거기서 무덤을 디하야 안졌더라”이다. 『개일역』과 『개역』은 『구역』대로 번역했다. 나

---

역』대로, 나머지 후대의 번역은 ‘앉아 계신’으로 번역했다. ‘예수 | 감람산에 안저계실 쎄에 데자들이 조용히 와서’(24:3). 『구역』과 『개일역』이 올바르게 번역한 것을 『개역』이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로 틀리게 바꿨다.

머지 번역들은 모두 ‘앉아 있었다’로 번역했다.

28장 2절은 “주의 턴스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구울니고 그 우에 안졌는데”이다. 『개역』은 『구역』과 같이 번역하고 『개일역』은 ‘안즈니’로 번역했다. 나머지 번역들은 모두 ‘앉아 있었다’로 번역했다.

26장 36절은 “데즈들의게 널으샤되 너희는 여기 안졌스라”이다. 『개일역』과 『개역』대로 ‘안졌스라’로 번역했으나 『개역』은 ‘앉아 있으라’로 올바르게 번역했다.

동작을 뜻하는 경우에는 거의 번역본들이 바르게 번역했다.

5장 1절은 “예수씨셔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안즈시니 데즈들이 나아와”이다. 단순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진행의 의미로 번역하면 오역이 된다.

23장 2절은 “서기관과 바리새 교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안졌스니”이다. 『개일역』과 『개역』은 『구역』대로 바르게 번역했다. 이 동사가 단순 과거이기 때문에 진행의 뜻으로 번역하면 오역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 자리를 차지한 과거의 행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뜻을 나타내려고 했다면 단순 과거 대신에 미완료를 사용했을 것이다. 『표준개정』, 『공동개정』, 『200』, 『성경』은 문법보다는 의미에 치중하여 ‘앉아 있다’로 번역했는데, 엄밀히 판단하면 옳은 번역이 아니다. 『표준개정』은 문법과 의미를 절충하여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와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로 번역했다.<sup>15)</sup>

26절 55절은 “내가 날마다 성단에 안져 그릇치되 너희가 잡지아니 하엿스나” 모든 번역이 ‘안져/앉아/앉아서’로 번역했다. 이 경우에 ‘안져/앉아/앉아서’는 동작을 뜻할 수도, 지속 상태를 뜻할 수도 있다. 원문으로는 미완료이기 때문에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번역해야

15) 동작의 의미로 번역해야 하는 이 밖의 구절들은 13:38; 15:35; 19:28; 20:21, 23; 25:31이다.

한다. ‘안져 가르치되’(구역, 게일역), ‘앉아 가르쳤으되’(개역), ‘앉아서 가르쳤으나’(200), ‘앉아 가르쳤지만’(성경)으로 번역하면 동작의 의미인지 지속의 의미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그러나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새번역, 표준), ‘앉아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는’(공동)으로 번역하면 ‘가르치고 있었다’는 표현과 연관 지어서 ‘앉아서’가 지속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24장 42절은 “그런고로 맛당히 썰지어다 어느 날에 너희 주께서 립홀줄을 너희가 아지못하느니라”이다. 『게일역』은 『구역』대로 번역했으나 『개역』은 ‘깨어 있으라’로 올바르게 번역했다. 후대의 나머지 번역들도 모두 ‘깨어 있으라’로 번역했다. 만일 ‘깨어나라’라는 동작을 의미하려 했다면 현재 명령형 대신에 단순 과거 명령형을 사용했을 것이다.

24장 43절은 “만일 집 주인이 어느 경덤에 도적이 홀줄을 알았더면 썩여 제 집을 쏘치못하게 하였스리니”이다. ‘썩여’는 단순 과거 동사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깨어 있었다’는 뜻이 아니나 ‘깨어났다’는 뜻이다. 『구역』과 『게일역』이 원문의 의미대로 올바르게 번역했다. 『개역』, 『새번역 신약』, 『공동개정』, 『200』, 『표준개정』, 『성경』은 ‘깨어 있어서’로 잘못 번역했다. 여기서 단순 과거 동사가 의미하는 것은 집 주인이 줄곧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도둑을 막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고 도둑이 침입하는 시각을 알고 있었다면 바로 그 시점에 깨어나서 도둑을 막았으리라는 것을 뜻한다.

25장 13절은 “그런고로 썰지어다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아지못하느니라”이다. ‘썰지어다’는 현재 명령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를 뜻한다. 『구역』과 『게일역』은 동작의 의미로 잘못 번역했다. 『개역』과 나머지 모든 번역들은 ‘깨어 있어라’로 올바르게 번역했다.

26장 38절은 “너희는 여기 나와 흠씩 썩여 있스라”이다. 『구역』으로부터 『성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번역들이 옳게 번역했다.

26장 40절은 “너희가 나와 흠씩 흔 시 동안을 썩여 있지 못하느냐”

이다. 『구역』에서 『성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번역들이 지속의 의미로 ‘깨어 있지’ 못하느냐로 번역했다. 만일 그런 의미를 나타내려 했다면 원문에 현재 부정사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원문에 단순 과거 부정사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단순 과거는 일회적 동작을 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단 한 순간이라도 깨어날 수/깨어나 볼 수/ 없느냐?’는 것을 뜻한다. 영역 성서들도 예외 없이 모두 ‘깨어 있다’의 뜻으로 잘못 번역했다.

26절 41절은 “씩여 기도하야 시험에 들지 안케 하여라”이다. ‘씩여 기도하야’는 원문으로는 ‘깨어 있어라’와 ‘기도하여라’라는 두 개의 현재 명령이 대등 접속사 ‘카이’(καί, and)로 연결된 것이다. 즉 ‘깨어 있어서/있으면서/있는 채로 기도하여라’를 뜻한다. 『구역』과 『게일역』은 ‘깨어나서 기도해서’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개역』과 『새번역 신약』은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옳게 번역했다. 그러나 『공동개정』, 『200』, 『성경』은 ‘깨어 기도하여라’로, 『표준개정』은 ‘깨어서 기도하여라’로 번역했다. ‘깨어/깨어서’는 지속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동작을 뜻하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일 수 없다.

6장 5절은 “회당과 거리 어구에 서서 기도하기를 도화하느니라”이다. ‘서서’는 ‘선 채로’를 뜻한다. 『구역』에서부터 『성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번역들은 ‘서서’로 올바르게 번역했다. 다만 『새번역 신약』은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을 ‘...무퉁이에서 기도하기를’로 인쇄 과오를 범했을 것이다.

12장 25절은 “성이나 집이나 스스로 분청하면 서지 못하느니라”이다. ‘서다’가 동작 동사인 경우에 성이나 집이 선다는 것은 성이나 집이 세워진다/건설된다는 것을 뜻하며 상태 동사인 경우에 성이나 집이 서 있다는 것은 성이나 집이 그 자리에 있다거나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게일역』과 『개역』은 『구역』대로 동작 동사로 잘못 번역했으며 『새번역 신약』도 그렇게 했다. 『공동개정』, 『200』, 『표준개정』, 『성경』은 지속의 뜻을 표현하기 위하여 ‘버티겠느냐/버티어 내겠느냐’로

옳게 번역했다.<sup>16)</sup>

12장 46절은 “그 모친과 동생들이 밧게 서서 예수씨 말하러흔디”이다. 원문은 예수의 가족이 그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구역』, 『계일역』, 『공동개정』은 ‘서서’로, 『개역』은 ‘섰더니’로 번역했다. 이러한 번역은 지속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한다. 『새번역 신약』은 ‘서 있었습니다’로, 『표준개정』과 『성경』은 ‘서 있었다’로 번역했다. 『200』은 전혀 딴 낱말로 바꾸어 번역했다.<sup>17)</sup>

13장 2절은 “예수 | 비에 올라가 안즈시고 모든 무리는 언덕에 섯는 지라”이다. ‘올라가’는 단순 과거 동사이고 ‘앉으시고’는 현재 부정사인 데 단순 과거 동사의 결과로 잇달아서 일어난 동작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그것은 ‘앉아 계셨다’는 뜻이 아니라 ‘앉으셨다’는 뜻이다. 『구역』, 『개역』, 『새번역 신약』, 『공동개정』, 『성경』은 ‘앉으시고’로, 『계일역』은 ‘안즈시니’로, 『200』은 ‘자리잡으시고’로, 『표준개정』은 ‘앉으셨다’로 옳게 번역했다. 영역 성서 가운데서는 동작 동사로 번역한 것은 NASB와 NIV이다. 이 둘은 “sat down”으로 번역했다. ‘서다’는 동사의 시제는 대과거 완료이지만 미완료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서 있었다’는 뜻이다. 『구역』과 『계일역』의 ‘섯는지라’와 『개역』의 ‘섰더니’는 동작을 뜻하는지 지속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새번역 신약』, 『공동개정』, 『200』, 『표준개정』, 『성경』은 ‘서 있었다’로 옳게 번역했다.

16장 28절은 “여기 섯는 사람 중에 죽지아니하여서 인즈가 그 나라로 림흔 거슬 볼쟈가 잇느니라”이다. 『구역』, 『계일역』 『개역』은 ‘섯는/섯는’으로 번역했지만, 『새번역 신약』, 『공동개정』, 『표준』, 『성경』은 ‘서 있는’으로 바로 잡아 번역했다. 『200』은 ‘있는’으로 번역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서 있는’의 오식일 것이다.

20장 3절은 “스시초에 나가 장터에 섯는 사람들을 보고”이다.

16) 12:26도 같은 사례에 속한다.

17) 12:47도 동일한 유형에 속한다.

『구역』, 『게일역』, 『개역』은 ‘섯느/섯는’으로 번역했지만 『새번역 신약』은 ‘서성거리고 있는’으로, 『공동개정』은 ‘서 있는’으로, 『200』은 ‘서 있어서’로, 『표준개정』과 『성경』은 ‘서 있었다’로 옳게 번역했다.<sup>18)</sup>

24장 15절은 “멸망 식힐 뒤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섯는 거슬 보거든”이다. 『구역』, 『개역』, 『새번역 신약』, 『공동개정』의 ‘섯느/션’은 ‘서 있는’의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게일역』의 ‘섭을 보리니’는 명백하게 서는 동작을 뜻한다. 『200』, 『표준개정』, 『성경』은 ‘서 있는’으로 번역했다.

26장 73절은 “조금 후에 섯헤 섯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닐으되”이다. 『구역』, 『게일역』, 『개역』, 『공동개정』은 ‘섯던/섯던’으로 번역했지만 『새번역 신약』, 『200』, 『성경』은 ‘서 있던’으로, 『표준개정』은 ‘서 있는’으로 번역했다. ‘서 있던’과 ‘서 있는’은 의미상의 차이는 없지만 어법상으로는 ‘서 있는’이 옳다.<sup>19)</sup>

27장 11절은 “예수 | 감스 압헤 섯스니 감스가 무려 굴으되”이다. 여기 있는 ‘서다’는 동사는 단순 과거이기 때문에 동작으로 번역해야 한다. 『게일역』과 『표준개정』은 ‘서시니’로 번역하여 동작의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냈다. 『구역』의 ‘섯스니’보다는 『개역』의 ‘서시매’가 동작의 뜻을 더 잘 나타낸다. 『200』과 『성경』은 ‘서섯다’로 옳게 번역했다.

## 2.5. 주격 조사를 부정확하게 사용한 경우가 많다

우리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주격 조사가 있다. 어느 주격 조사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확연히 달라진다.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경우에 어떤 주격 조사를 선택할 것이냐는 문제는 아주 어려운 과제이다. 『구역』은 주격 조사 ‘~은/는’을 사용해야 할 것을 ‘~/이/

18) 20:6의 두 예도 이 유형에 속한다.

19) 27:47도 이 유형에 속한다.

가'를 사용하여 잘못 번역한 경우가 많다.

4장 11절은 “이에 마귀는 예수를 쫓아내고 던사는 니르러 슈중드더라”이다. 『게일역』은 ‘天使가’, 나머지 번역들은 모두 ‘천사들이’로 번역했다.

5장 37절은 “오직 너희 말이 올흔 거슨 올타 흐고”이다. 『개역』은 ‘너희 말은’으로 번역했다.

7장 12절은 “...너희도 늬을 디접하여라 이는 룰법과 선지자의 대지 나라”이다. 『게일역』만 『구역』을 따르고 『개역』에서부터 『성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번역본들은 ‘이것이’로 번역했다.

8장 11절은 “동편셔 셔편스지 허다흐 사릅은 니르러”이다. 『게일역』에서 『성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번역본들이 ‘사람(들)이’로 번역했다.

9장 13절은 “내가 올흔 사릅을 부르러 온 거시 아니오...”이다. 『개역』만 예외로 하고 『게일역』에서 『성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번역본들이 ‘나는’으로 번역했다.

9장 24절은 “이 으희가 죽은 거시 아니라 잔다”이다. 『게일역』과 『개역』만 예외로 하고 나머지 모든 번역본들은 ‘이 소녀는’으로 번역했다.

13장 43절은 “의로운 자들이 저희 아버지 나라에서 희와 갓치 빗최 리니”이다. 『게일역』만 예외로 하고 『개역』에서 『성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번역본들은 ‘의로운 자/의인들은’으로 번역했다.

13장 54절은 “이 사릅은 이 지혜와 권능을 어딴서 엇엇느뇨”이다. 『게일역』, 『새번역 신약』, 『공동개정』, 『표준개정』, 『성경』은 ‘이 사람이’로 번역했다. 『개역』과 『200』은 구문을 달리해서 번역했다.

13장 57절은 “선지자<sup>가</sup> 제 고향과 집 외에는 존경함을 빗지아님이 업느니라”이다. 『새번역 신약』, 『표준개정』, 『성경』은 ‘예언자는’으로 번역했고 『게일역』, 『개역』, 『200』은 ‘선지자/예언자가’로 번역했다.

15장 2절은 “선칭님의 데즈들이 먹을 썬에 손을 씻지아니햐”이다. 『개역』만 예외로 하고 나머지 모든 번역본들은 ‘제자들은’으로 번

역했다.

15장 10절은 “입에 드러가는 거슨 사롬을 더럽게 흐지 못흐되 입에셔 나오는 거신 사롬을 더럽게흐느니”이다. 『게일역』만 『구역』대로 번역했고 『개역』, 『새번역 신약』 『200』, 『표준개정』, 『성경』은 ‘… 것이… 것이/것이야말로’로 번역했다.

17장 24절은 “네 스승이 성던 세를 내지 아니흐느냐”이다. 『게일역』과 『개역』만 『구역』대로 번역했고 나머지 번역본들은 모두 ‘선생님/스승은’으로 번역했다.

22장 2절은 “턴국이 었던 님군과 긋흐니”이다. 모든 번역본은 하나도 예외 없이 ‘천국은/하늘나라는’으로 번역했다.

26장 26절은 “이거신 내 몸이라 흐시고”이다. 『개역』만 예외로 하고 모든 번역본들은 ‘이것은/이는’으로 번역했다. 『200』은 주어를 생략하고 번역했다.

26장 27절은 “너희가 다 이거슬 마시라”이다. 『개역』과 『새번역 신약』만 『구역』의 번역을 따랐다. 『게일역』, 『표준개정』, 『공동개정』은 ‘너희는’으로 번역했고 『200』과 『성경』은 주어를 생략하고 번역했다.

26장 40절은 “너희가 나와 흙씨 흐 시동안을 씨여 식지못흐느냐”이다. 『게일역』과 『개역』은 『구역』을 따랐고 나머지 모든 번역본들은 ‘너희는/그대들은’으로 번역했다.

27장 17절은 “너희가 누구를 노하달나흐느냐”이다. 『게일역』은 『구역』을 따랐고 『개역』과 『표준개정』은 ‘너희는/어려분은’으로 번역했다. 『새번역 신약』, 『공동개정』, 『200』, 『성경』은 2인칭 복수 주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번역했다.

1장 2-6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낫코 이삭은 야곱을 낫코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낫코…이새는 다윗 왕을 나으니라”이다. 『게일역』과 『개역』은 『구역』을 따랐고 나머지 모든 번역본은 ‘아브라함은…이새는’으로 번역했다. 『구역』, 『게일역』, 『개역』이 왜 아브라함에게만 주

격 조사 ‘이’를 붙이고 나머지는 ‘은/는’을 붙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모두에게 ‘이/가’를 붙이거나 모두에게 ‘은/는’을 붙여야 할 것이다. 『새 번역 신약』, 『공동개정』, 『200』, 『성경』은 모두에게 ‘은/는’을 붙였다.

### 3. 맺음말

『구역』에서 과오로 지적된 것들은 대개 후대의 번역본들에서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답습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말 번역 성서를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우리의 성서 주석자들, 성서 번역자들, 국어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합일된 원칙을 세워야 하며, 번역자들은 반드시 이 원칙을 숙지하고 따라야 할 것이다. 이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첩경이다.

『구역』에서 건져내어 살려야 할 유산도 수없이 많이 있다. 그것들을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구역』의 유산 중에서 바로 잡아야 하지만 떨쳐버리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체질 속에 깊숙이 물들어 있는 것들 중의 하나는 ‘주(主)여!’라는 부름말이다. 높은 분을 부를 때에 ‘~아’ 또는 ‘~이어/여’라는 호격 조사를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어법상의 예절이다. 우리는 이 잘못된 유산을 깊이 보존해야 할 소중한 보물로 착각하는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성경 전서』(1911년) 출간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 단 한 가지 과오라도 수정하는 것이 그 역사적 위업을 보람되게 기념하는 일이 될 것이다.

<주요어>

성경전서(1911년), 게일역, 개역, 번역 원칙, 분사, 주기도문, 성서 번역, 우리말, 문체

<Key Words>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1911), Gale Translation, Korean Revised Version, Translation Principle, Participle, the Lord's Prayer, Bible Translation, Korean, Stylistics

\* 접수일 2010년 8월 15일, 수정일 2010년 8월 28일, 게재 확정일 2010년 9월 5일

### 참고문헌과 약어

- 『구역』: 『신약전서』, 조선/경성: 조선/경성 대영성서공회, 1911.  
『개역』: 『성경전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38.  
『게일역』: 『新譯 新舊約全書』, 京城: 基督教彰文社, 大正 14/1925.  
『공동개정』: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로스역』: 『예수성교전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86, 1995 복쇄.  
『성경』: 『성경』, 서울: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2005.  
『새번역』: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새번역신약』: 『새번역 신약전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7.  
『200』: 『신약 성서』,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성서, 서울: 분도 출판사, 1992.  
『표준』: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표준개정』: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CE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1995)  
KJV King James (1611/1769)  
NAB The New American Bible (1970)  
NAS New American Standard Bible (1960/1971)  
NEB New English Bible (1961)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1979)  
NRS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1989)  
NTG<sup>27</sup> Novum Testamentum Graece (27th. Nestle-Aland)

<초록>

## 『성경전서』(1911년)의 번역 검토 제2부

-『마태복음서』 번역의 과오와 계승 방안을 중심으로-

김창락

(한신대학교 은퇴 교수)

본 논문은 한국어로 최초로 번역, 출판된 신, 구약 성경 전서이자 한국 교회의 공인을 받은 최초의 성경인 『성경전서』(1911년)의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여, 『성경전서』(1911년)의 번역상의 공과를 철저히 밝혀서 앞으로 새로 나올 번역의 질적인 수준을 고양시키는 데 공헌하고자 한다. 지난 1부에서는 미래의 번역이 수용해야 할 『성경전서』(1911년)의 장점을 논했다. 2부에서는 『성경전서』(1911년)의 과오와 개선 방안을 기술하고자 한다. 지난 1부에서 다룬 『성경전서』(1911년)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성경전서』(1911년)는 첫째, 현재, 과거 분사 구문의 처리 문제, 둘째, 접속사 ‘가르’(γαρ)의 번역 문제, 셋째, 동작 동사의 지속성에 대한 번역 문제, 넷째, 주격 조사 사용 문제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성경전서』(1911년)에 대한 충분한 비평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후대의 여러 번역들이 『성경전서』(1911년)의 과오를 적지 않게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 논문은 『성경전서』(1911년)의 과오 중에서 바로 잡아야 하는 사례들을 여러 범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성경전서』(1911년) 출간 100주년을 맞이하여 단 몇 가지 과오라도 수정된다면, 100주년을 보다 의미 있게 기념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n Evaluation of the Translation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1911)  
Part 2: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Gospel of Matthew-  
It's Limitation.**

Chang-Nack Kim

(Retired Professor of the Theological Seminary, Hanshin Univ.)

In commemoration of the centennial anniversary of the publication of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1911), which can be characterized as the first officially approved version of the entire Bible, this paper is aimed at making its limitations exhaustively clear so as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quality of the future translations in Korean. Previously, in Part 1 (2010, Spring), its contributions are discussed. In this paper, we have pointed out several translation problems in terms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esent and past particles, the conjunction *gar*(γάρ), the durative aspect of the action verbs, and the postpositive words which come after the nominative. Unfortunately, these problems have been followed in the later translations. If only these errors could be amended in our forthcoming translations, our commemoration of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1911) would be much more meaningfully.